

대전선비 민제인의 관료활동과 경세관

한기범 교수

한남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3. 훈척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거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민제인(閔齊仁, 1493-1549)의 본관은 여흥이고, 호는 입암(立巖)이다. 1493년(성종 21) 아버지 민구손(성균관 전적)과 어머니 언양김씨 사이에서 태어나 1549년(명종 4) 향년 57세로 생을 마쳤다. 문과를 거쳐 벼슬에 나아가 서북지역의 지방관과 중앙 조정에서의 청요직을 두루 거쳐 벼슬이 좌찬성(종1품)에 이르렀다. 자비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후한 성품과 민(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무에 임하여 백성들로부터 장자(長者)의 평을 들었다. 평소 모나지 않은 온건한 처신으로 행정에 임하였으나, 을사사화 후 자신들의 비행을 숨기기 위하여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훈척들과의 갈등으로 공주(지금의 세종시 반곡동)에 유배갔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초장지는 고향인 대전의 대덕구 삼정동 선영이며, 이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명우리이다. 시문으로는 「백마강부」, 저서로는 아동용 교재인 『동몽선습』으로 저명하다. 후손들도 충효가 돈독하여 책자 『오세충효록』과 ‘여흥민씨 3세칠효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1) 문무겸전(文武兼全)의 관인, 민제인

- 민제인의 뛰어난 예술 능력은 그가 21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8세시에 문과에 급제한 데서 확인되지만, 출사한 이후에도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어 호당록(湖堂錄)에 들었고, 또 이조정랑으로 있던 1530년(중종 25) 3월에는 그동안 그가 문신 월과제술단자(月課製述單子)에 다섯 번이나 1등을 차지하여 가자(加資)를 받았다.
- 조정의 인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우의정 김극성(1474~1540)은 민제인의 의주 목사로서의 치적에 대하여, "민제인은 문무(文武)의 자질을 겸비하여 전일 의주(義州)에 있을 때의 업적이 불만합니다."라고 하였고, 따라서 그를 다시 병사(兵使)에 임명하려고 할 정도로 그의 문무겸전의 재능은 조정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 명종 초의 사관이 논한 사평(史評)에 "민제인(閔齊仁)은 일찍이 의주목사(義州牧使)와 함경도 병사(咸鏡道兵使)를 지낸 바 있어 변방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큰일이 있을 경우 이 사람은 쓸 만한 인재(人材)입니다."라 하였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2) 후덕한 장자(長者)

○ 민제인에 대한 '장자(長者)'의 칭호 -조선왕조실록

- 장자(長者)란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아 세상일에 밝은 어른에 대한 존칭'이다.

“대사헌 민제인이 평안도에서 돌아와 【감사(監司)에서 체직되어 이 벼슬에 제배되었다.】 사은 숙배(謝恩肅拜)하고, 이어서 두 번 사직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민제인은 본디 중한 명망이 있고 관서(關西)에 있을 때에 힘써 관대한 정치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장자(長者)'라 일컬었고 이때에 이르러서는 물망이 더욱 중하였으나, 식자(識者)는 마음에 확고한 힘이 없는 것을 의심하였다. 『중종실록』 101권, 중종 39년(1544) 1월 9일(무신)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부여 민입암집 판각(외부)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민제인의 입암집(6권 3책, 목판본) 판각(내부)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3) 인문학의 엘리트 지성

(1) 민제인의 「백마강부」 : 조선의 대표 사부(詞賦)

■ 민제인의 백마강부

- 일찍이 백마강부 한 편을 지었는데 당시 여러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평하는 이들은 근세 문인들이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중국 사신이 들어와 동국의 명작들을 구해 보고자 했을 때 이 글을 주었더니 옛적 이소(離騷)와 서로 겨룰 만하다 하였다.

[민정중(1628~1692), 「입암공 행장」]

- 성품이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십 칠팔 나이에 풍악산 향로봉, 속리산 문장대 등 여러 명산을 두루 유람하면서, 아름다운 경승을 모조리 탐방하였고, 지은 시(詩)는 두루마리가 넘었고 문장은 날로 불어났다. (「입암공 행장」)
- 위의 두 가지 기사가 행장에 수록된 순서로 보아 백마강부는 대개 그가 16-17세 경에 지은 것이 아닌가 한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부여 민제인 백마강부 각판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 민제인의 백마강부 이야기 - 『가승기략』

세상에서 전하기를 공이 소시에 상제(庠製)에 들어가서 백마강부(白馬江賦)를 지어 바쳤다가 굴(屈)함을 당하고 그 정초(正草)를 소매 속에 넣고 두로(頭路)로 남대문에 올라가 달밤에 그 부(賦)를 외워 읽으니 그때에 창기(娼妓) 성산월(星山月)이란 자가 국중에서 이름을 날렸는데 마침 사인(舍人)의 연당(蓮堂) 연회에 가면서 다락 아래를 지나다가 시 읽는 소리가 낭연함을 듣고 다락에 올라가 묻기를 “수재(秀才)는 어찌해서 홀로 다락에 올라왔으며 송독하고 있는 것은 또 한 무슨 글이요?”라고 함에 답하기를 “내가 오늘 상제(庠製)에 나아가 지은 바가 뜻에 만족한데 굴함을 당했소. 때문에 개한(慨恨)을 이기지 못하여 달(月)을 타서 그 지은 바를 외웠소” 기생이 말하기를 “과연 선작(善作)이면 시험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바야흐로 사인(舍人)의 잔치에 가는데 여러 명사들이 매양 신곡을 듣고자 하니 내가 이 부(賦)를 외우면 신곡을 지을 것입니다.”라고 함에 공이 드디어 가르쳐 주었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 기생이 이에 이를 입으로 외우면서 갔었는데 잔치 자리에 도착하여 신곡을 내놓을 것을 청함에 이 부(賦)를 노래하니 온자리가 경탄하여 말하기를 “이는 누가 지은 것이냐?”라고 함에 기생이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날에 상제(庠製) 시관이 또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럿이 모두 구책(箝責)하여 술로서 벌하였다. 이로부터 팔방에 전파되어 기생으로 이름 된 자는 암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성산월본(星山月本)은 성주(星州)의 기생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산지(星山誌)에 상재되어 있고 또한 경외(京外)의 시제(詩題)에도 나온다고 한다. (각 조목은 부술공이 추보한 것임) - (민유중, 『가승기략』)

● 위에서는 민제인이 백마강부를 지어서 제출한 것이 성균관 또는 성균관의 월과를 뜻하는 상제(庠製)였고, 그가 성산월에게 이 부를 써서 준 것도 그녀의 집이 아니라 승례문에서 시를 낭송한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또 성산월이 사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백마강부를 읊었는데 그 자리에는 민제인의 「백마강부」를 하등(下等)으로 평가한 상제의 시관(試官)이 있어서 잘못 뽑았다는 죄목으로 벌주(罰酒)를 받게 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어우야담』의 기사(여기에는 벌주 이야기 없고, 또 민제인이 성산월을 따라가 그 집에서 3일을 유하였다)고 되어 있다)와는 다른 내용 들이어서 주목된다. 아마도 「백마강부」가 유명하다 보니 이본(異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후일 그 전언들을 재해석한 측면도 없지 않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 조선의 대표 책문(策文)과 시부(詩賦)

분야	제목	저자		내용
		호	이름	
책문 (策文)	천도책 (天道策)	율곡(栗谷)	이이 (李珣, 1536~1584)	1558년(명종 13) 이이가 별시에 장원하였을 때의 책문(답안)으로, 이기론(理氣論)에 입각한 우주관과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이 핵심이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부(賦)	백마강부 (白馬江賦)	입암 (立巖)	민제인 (閔齊仁) 1493~1549	1509년(중종 4) 경 민제인(閔齊仁)이 백마강을 배경으로 하여 백제의 망국의 역사를 아프게 노래한 사부(詞賦)이다.
	칠석부 (七夕賦)	하서 (河西)	김인후 (金麟厚) 1510~1560	1528년(중종 23) 김인후가 성균관 백일장에서 장원한 답안으로, 칠석에 견우직녀의 애뜻한 사랑을 노래한 사부(詞賦)이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시(詩)	음송거시재복아 (泣送去時在腹兒)	백사 (白沙)	이항복 (李恒福) 1556~1618	이항복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울면서 떠나갈 때 이별을 읊은 시이다.
	와념소유언 (臥念少游言)	삼연 (三淵)	김창흠 (金昌翕) 1653~1722	김창흠이 ‘누워서 소유의 말을 생각하다.’의 제목으로 지은 시이다.
	답조낙모 (答嘲落帽)		이세정 (李世楨) 1661~1721	도정(都正) 이세정의 시인데, 실록에서는 “과장에서 손을 빌린 것인데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라 했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2) 최초의 아동용 교재 『동몽선습』의 저자

■ 동몽선습 발문(송시열 찬)

- 내가 어릴 적에 보면 남의 집의 처음 배우는 자제들이 모두 《동몽선습》을 맨 먼저 익히곤 하는데, 이 책이 어느 사람의 손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가 이제 상사(上舍) 박정의(朴廷儀) 씨가 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이 글은 우리 고조 휘 세무(世茂)가 엮은 것이다.' 하기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오늘에야 그 사람을 알았다.' 하였다.
- 포괄된 범위와 요약된 설명이 모두 학문 중에서 체득한 일대 공안(公案)이고, 또 서열된 역대(歷代)도 사가(史家)의 총목(總目)이 된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 어떤 이는 의심하기를 본서에 수록된 이기(理氣) · 성명(性命) 등의 설은 동학(童學)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작자의 본의를 모른 것이다.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인(仁)이라는 이름과 뜻은 옛사람의 가르침에 이미 소학(小學) 시절로부터 솔직 분명한 훈설(訓說)이 되어 있으니, 이 도리를 알아서 착실히 실천하게 하는 것은 그 지위에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망연(茫然)히 알지 못한다면 그 구하는 바가 한평생 모르는 물건이 되고 말 터인데, 다시 무엇을 바라고 사모하여 그 힘쓸 바를 알겠는가." 하였으니,
- 오늘의 동학으로 여러 가지 이름과 뜻의 한계를 대략 알아서 그 귀추를 세운 자가 반드시 이 글에서 체득한다면 그 효과가 어찌 크지 않겠는가.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 듣건대, 금상 전하가 경연에 임할 때마다 이 글을 말씀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니, 그 학문의 밝음이 반드시 이를 알고 계신 것이다. (1670, 현종11) 은진 송시열 근서
-

- 『동몽선습』은 경사(經史, 오륜과 역사)로 구성된 최초의 아동교육용 교재로서, 후일 영조(英祖)는 친히 그 서문을 지어 전국 향교의 필수 교재로 쓰게 하였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 저자 논쟁 : 동몽선습 평양 계묘본 윤인서 발문(1981년 발견)

... 지금의 감사인 상국 여흥 민제인이 풍속이 병들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성품을 질곡하여 금수와 가깝게 됨을 애통하게 여겨서, 마침내 동지와 함께 한 권의 책을 지었는데, 오류를 조목조목 답아 경전의 말씀으로 질정하고 역대의 역사를 모두 서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미치었다. 이름하여 ‘동몽선습’이라 하고 가훈으로 삼았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고 알기 쉬워 오래 걸리지 않아 그 뜻을 환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 선생이 인륜과 일상생활에 간절히 뜻을 두어 후학을 깨우쳐 인도하고 세상의 교육을 유지하는 뜻이 지극하다. 시골의 때늦은 사람도 이 책을 얻어 공부하고 축적하여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의 지남(指南)으로 삼는다면, 또한 족히 많은 지식과 덕을 쌓을 수가 있을 것이니 어찌 다만 아동의 무지를 깨우칠 뿐이겠는가? ...

가정 계묘(1543) 중동 하순에
행도사(行都事) 파평 윤인서는 삼가 발문을 쓰노라.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몽선습’ 조 수정본(2018년)

동몽선습 편저자 : 박세무, 민제인

동몽선습 간행자 : 민제인(1543년), 조선 정부(1759년)

(동몽선습) 정의 : 조선 중기 유학자인 박세무(朴世茂) · 민제인(閔齊仁)

이 초학 아동들을 위하여 지은 책.

서지 사항 : 1책. 필사본 및 목판본.

* 1543년(중종 38년) 발간된 평안도 감영본의 발문에는 당시 평안감사(平安監司)로 있던 민제인(閔齊仁)이 동지와 함께 이 책을 공술(共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입암 민제인 선생 묘소(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명우산 소재)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입암 민제인 선생 초장지(삼정동)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여흥민씨 효자정려(도룡동)

1. 입암 민제인, 그는 누구인가?



《오세충효록》 - 여흥민씨의 인물과 유적

2. 사회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1) 조광조의 신원(伸寃) 문제

(1) 민제인 가계의 도통적 학맥

- 조부는 휘가 수(粹)로 점필재(佔畢齋) 등 여러 현자들과 종유했으며, 시(詩)를 잘 한다는 이름이 났고, 이조 정랑으로 있었다. (「입암행장」)
- 고(考)의 휘는 귀손(龜孫)인데, 한훤당(寒暄堂) 김선생(김굉필)을 사사(師事)하면서 안응세 등과 종유했다. (「입암행장」)
- 한국유학의 도통의 계보는 포은 정몽주 - 야은 길재 - 강호산인(江湖 散人) 김숙자 - 점필재 김종직 - 한훤당 김굉필 - 정암 조광조로 이어져 왔다. 입암의 가계적 학맥은 정암(조광조)의 정통 계보[士林派]임을 알 수 있다.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2) 민제인의 조광조에 대한 기본 인식

- “공(公)은 가정의 훈도를 입어 유가(儒家)로의 바른 의리를 연마하며 항상 조정암(趙靜庵)과 같은 어진이들의 곧은 논의를 사모하면서, 지난 날 정암(조광조)의 발탁으로 벼슬길에 나간 것을 우러러 감사하였다.”
- “기묘년(1519)에 사화(士禍)가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은 화가 두려워 조심했지만, 공은 정성으로 존신하면서 늙어서까지 그 마음이 기울 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간흉들이 죄를 주려고 말을 꾸몄는데, 즉 “민모(閔某)는 항상 기묘년 때의 인물들을 존모했던 까닭에 사류(士類)들로부터 중망을 받았다.”라 하였다. (「입암공행장」)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 경연에서 교육문제를 논할 때 사장(師長)의 사표로 조광조를 언급하다.

민제인은 아뢰기를, “..... 조광조(趙光祖)는 학문에 도타왔으나, 다른 선비들은 선(善)을 좋아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이어서, 먼저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서 인물을 논하고 시정(時政)을 평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과격한 습관이 이미 이루어지매 조광조가 그 폐단을 억제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단점으로 여겨졌고, 마침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다 하여 죄를 얻었는데, 그때 위에서도 잘 처리하지 못하셨으므로 사림의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름지기 위에서 사장(師長)을 삼가 가리고 진실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권하여 부박(浮薄)하고 기이한 논설을 하는 버릇을 억제하면, 선(善)을 권하는 도리가 마땅할 것입니다.”

(『중종실록』 101권 중종 39년(1544) 1월 26일 을축)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3) 조광조의 신원(伸冤)에 앞장서다

- 기묘 사화(1519년) 이래로 사람들이 다 정암 조광조와 여러 어진 이를 말하기를 꺼렸으나, 공은 성심으로 추모하였으며, 일찍이 대사헌으로서 드디어 억울한 죄를 씻고 관작을 회복시키기를 청하였는데, 정도(正道)를 업신여기게 된 이후로 이것을 말한 것은 아무도 공보다 앞서지 않았다. (송시열, 「입암공 신도비명」)

* 신원(伸冤) : 원통한 일을 풀어냄.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 사헌부 대사헌 민제인 등이 올린 조광조의 신원 등에 관한 차자 (1)

- 조광조 등은 선왕 때에 충성을 다하고 세도(世道)가 날로 쇠퇴하는 것을 늘 염려하여 삼대(三代)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기고, 동지를 힘써 인솔하여 평생의 품은 뜻을 죄다 펴서 옛 정치를 오늘날에 다시 보기를 바랐습니다. 불행히도 본받고 따르는 무리가 점점 경박하고 과격한 버릇을 이룬 것을 조광조도 진실로 이미 근심하였으나 또한 막지 못하였으니, 당시에 중도에 지나친 잘못은 있었으나 그 마음을 미루어 보면 일월(日月)과 빛을 다툼다고 할 만합니다.
- 이것을 보면 조광조의 충정 정직은 나라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바요, 공론이 함께 따르는 바이며, 심언광소봉이 간사한 자에게 아부한 것은 또한 나라 사람이 함께 미워하는 바요 공론이 따르지 않는 바인데, 이제 벼슬을 주는 명이 충정 정직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도리어 간사한 무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 (비답) "이 차자를 보니 논한 바가 지극히 마땅하다. 조광조 등의 복직은 공론에서 나온 것인 줄 알고 있다. 다만 선왕께서 그 지엽(枝葉)을 등용하면서 은혜가 이 사람에게만은 미치지 않았으니 아마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하였다.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1545) 5월 21일 임오)

■ 사헌부 대사헌 민제인 등이 올린 조광조의 신원 등에 관한 차자(2)

"조광조는 선조(先朝)에서 마음을 다하고 스스로 도(道)를 행하여 세상을 구제할 천 년에 한 번 있을 기회라고 생각하여, 분연히 용감하게 행하고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사림(士林)은 다같이 존경하였으나 간사하고 시기하는 무리는 청류(清流)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여 먼저 극죄에 처하였으니 그 화(禍)가 참혹하였습니다.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아, 조광조는 충정(忠正)한 자로서 끝내 배운 것을 죄다 펴지 못하고 뜻을 지닌 채 죽었으므로, 한때의 사람들이 함께 아까워 할 뿐 아니라 이제까지도 듣는 자는 누구나 다 슬퍼하고 억울하게 여깁니다.

-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1545) 5월 22일 계미

■ 조광조의 ‘절명시(絶命詩)’

愛君如愛父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憂國如憂家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白日臨下土 밝은 해가 아래 세상 내려다보고 있나니
昭昭照丹衷 가이없는 이내 충정 밝고 빛나게 비추리라.

* 단충(丹衷):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 인종이 대신 등에게 전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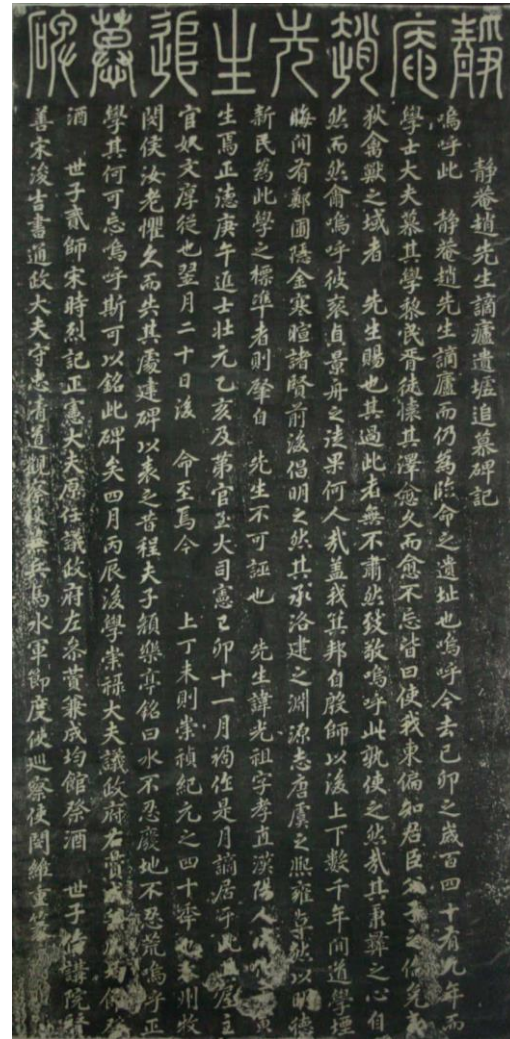
"조광조 등의 일은 내가 늘 마음 속에서 잊지 않았으나 선왕(先王)께서 전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감히 가벼이 고치지 못하고 천천히 하려 하였다. 이제는 내 병이 위독하여 날로 더욱 심해져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으므로 비로소 유언하여 뒤미처 인심을 위로하니, 조광조(趙光祖) 등의 벼슬을 일체 전일의 중의(衆議)처럼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현량과도 전에 아뢴 대로 그 과를 회복하여 거두어 등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1545) 6월 29일 경

신

● 인종은 이 명을 내린 다음날(7.1) 새벽 묘시에 흉거하였다.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정암 조선생 적려유허 추모비문 (송시열記, 송준길書, 민유중篆)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유허비각(전남 화순군 승주면 정암길 30번지 소재)



정암선생적려유허비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2) 을사사화(1545년)의 위사공신 시비

(1) 외척 형성과 세력 동향

인종(仁宗)	인종의 모후 (중종비)		외척(外戚)	세력의 동향
<p>재위 1544. 11 ~1545. 7</p>	<p>장경왕후</p>	<p>제1계비 윤씨 (윤여필의 녀)</p>	<p>윤임[大尹] (인종의 외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경왕후가 원자(인종)를 출산한 지 6일 만에 죽다 ○ 권신 김안로(윤임과 연계)가 세자(인종) 보호를 구실로 문정왕후 폐위를 시도하다가 사사되다.(1537년) ○ 인종은 현량과를 부활하고 조광조 김정 등을 신원하였으나 즉위 8개월 만에 후사 없이 요절하다.(31세)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명종(明宗)	명종의 모후 (중종비)		외척(外戚)	세력의 동향
<p>재위 1545.7 ~1567.6</p>	<p>문정왕후</p>	<p>제2계비 윤씨 (윤지임의녀)</p>	<p>윤원형[小尹] (명종의 외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안로의 탄핵으로 유배 갔던 윤원형(소윤)이 돌아 와 복권되다.(1537년) ○ 인종 사후 명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모후 문정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다. ○ 문정왕후의 밀지(密旨) 로 대운 탄핵 시작되다. - 을사사화(1545년 8월)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2) 외척세력의 갈등과 을사사화

○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정유년(丁酉年, 1537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大尹)·소윤(小尹)의 설이 있었는데 일을 좋아하는 군소배들이 부회(附會)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임백령·정순봉·최보한(崔輔漢)의 무리들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인종이 승하한 뒤에 윤원형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고 위험한 말을 꾸며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소문이 위에까지 들리고, 자전(문정왕후)은 밀지(密旨)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임백령·정순봉·허자가 이로 인해 변을 고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1545) 8월 22일(임자)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3) 헌납(정 5품) 백인걸의 민제인에 대한 비판

○ “대사헌 민제인과 대사간 김광준이 윤임을 논계하는 일에 관해 신들과 의논할 때에, 신들은 ‘나라에는 대신이 있고 또 육경이 있는데 이 일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대왕대비의) 밀지(密旨)에서 나왔으니 그릇됨이 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각자 의견을 주장하였고, 민제인과 김광준도 그렇게 생각하여 드디어 논계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 그러나 면대하여 윤원형의 잘못을 아뢰었어야 하는데 아뢰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제인은 헌부의 장관으로서 밀지가 내렸다는 것을 듣고는 전령(傳令)하는 군졸처럼 재상의 집으로 쫓아다녔으니, 이것이 비록 윗전을 위로하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간의 체통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습니다. ... 아울러 체직시키소서.”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1545) 8월 23일)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4) 백인걸의 탄핵에 대한 민제인의 반응

○ [입암 행장]: “공이 백공의 계사를 보고 칭탄하기를, ‘인걸의 말은 참으로 명확한 논의이다.’ 하고 마침내 자신을 배척한 일을 개의치 않았다.(성훈)

○ [입암 신도비명]: “처음에 백공(白公)이 와서 공을 보고 말하기를, ‘이 일은 다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바로 내 뜻도 그러하다마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일 뿐이다.’ 하였는데, 백공이 논계(論啓)한 것을 보고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정확한 논의이다.’ 하고, 끝내 자기를 배척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우암 송시열)

○ [실록 기사]: 사신(史臣)은 논한다. 제인은 착한 사람이다. 을사년 거사할 당시에 제인이 헌부(憲府)의 장으로 있었는데 밀지(密旨)를 받고 대신들의 집에 분주하게 연락하였었다. 대체로 처신하기 어려워 그런 것이지 본의가 아니었다. - 『명종실록』, 명종 3년(1548) 7월 2일(을해).

● 이때 민제인은 대사헌으로서의 직책 수행으로 위사 2등 공신이 되었다.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 [정조실록]: “신(臣, 정언 윤득부)은 듣건대, 옛날 명종 때 백인걸이 헌납이 되어 ‘권문(權門)의 전령(傳令) 군졸(軍卒)이 되었다.’는 것으로 대사헌 민제인을 탄핵하였는데, 민제인은 그 말이 ‘확론(確論)’이라 하고 인피하여 자신을 허물하여 지금까지도 ‘장자(長者)’로 일컫습니다. 신이 비록 백인걸에게 비의(比擬)하지는 못하겠으나, 충신이 유독 민제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정조실록』 17권, 정조8년(1784)6월5일 무자)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 민제인의 처벌을 요청한 훈척세력(황현)의 조정 진언에서 -

- “민제인은 성품이 본래 고집스러워서 항상 기묘년(己卯年)의 일을 호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림(士林)으로부터 추종을 받았고, 그가 한 마디 발언하자 사람들이 문득 그를 과장하였습니다. 그 과장을 좋아하여 스스로 그칠 줄을 모르고 끝내는 발언하기를 ‘생각이 시사(時事)에 미칠 때마다 천장을 쳐다보고 길이 탄식하곤 한다. 언제나 일신(一身)을 돌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노모(老母)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명종실록』 8권, 명종 3년(1548년) 6월 28일 신미)

2. 사화기의 관료활동과 위상

3) 사화정국에서의 사림의 옹호자

○ 이로써 임금이 윤임·유관·유인숙은 사사(賜死)하고, 이임은 먼 변방에 안치하고 권벌은 체직시켰다. [전교가 내리자 이언적·정옥형·윤개·민제인(閔齊仁)·나세찬 등 5~6인은 안색이 슬픈 빛이었고, 나머지는 대개 웃고 떠들면서 평일과 다를 것이 없었으며, 특의만면한 기색을 하는 자도 있었다.]

『명종실록』 1권, 명종 즉위년(1545) 8월 28일(무오)

○ 이때 경연청에서 대신들이 봉서(封書)를 가지고 밀계(密啓)하면서 '종사(宗社)를 위해 서계(書啓)합니다.' 하였는데, 이것은 정유년과 을사년에 적몰되지 않은 사람들을 추론한 것이었다. --- 자전이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좌우에서 모두 대신의 말을 따르라고 청하였는데, 민제인(閔齊仁)만이 유독 '어찌 꼭 사람을 죄주어서 인심을 진정시키겠습니까.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치면 인심이 자연 진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사의 무궁한 복입니다.' 하였다. 『명종실록』 7권, 명종 3년(1548) 2월 19일(병인)

3. 훈척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거

3. 훈척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거

1) 훈척의 역사왜곡과 민제인의 저항

○ 여기서의 ‘훈척의 역사왜곡’은 곧 안명세의 시정기(時政記) 사건을 말한다. 시정기는 춘추관에 서 각 관청의 업무 기록을 종합하여 편찬한 국정기록으로 실록의 기본 자료가 된다. 안명세는 27세(1544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이듬해(을사년)에 승정원 가주서로 있었는데, 마침 사화가 일어나자 그 전말을 직필(直筆)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 그후 명종 3년(1548) 2월 이기 권순봉 등이 을사사화에서의 자신들의 비행을 숨기고 거사의 명분을 세우고자 『속무정도감(續武定都監)』을 만들었는데, 이때 안명세의 시정기가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는 을사사화의 전말과 관련자들의 동태가 상세하게 직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안명세는 훈척에 의해 관에 체포되어 핍박을 당하였고, 끝내 그들에게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는 살해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1세였다.

○ 이후 훈척세력은 안명세가 쓴 사초(史草)의 개정을 시도하였는데, 그야말로 연원적 역사왜곡이었다. 이때 민제인은 시정기의 수정을 적극 반대하여 훈척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

3. 훈척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거

2) 반대 세력의 민제인에 대한 비판

○ 좌찬성 민제인은 역적을 제거한 후부터 늘 인유(仁柔)의 논을 주장하였는데, 신들은 이 논이 마침내는 국가에 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훈(元勳)으로서 그 본심은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그 논을 견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도록 고집만 부리고 깨우치지 못하면서 이르기를 ‘벌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재변이 그치지 않고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명세가 쓴 역사의 기록을 고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사림 중에서 그를 추모하는 자들이 모두 그 논을 옳다고 하며 사벽한 논란을 일으켜 그 어지러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 바라건대 그를 체직하여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1545) 5월 21일 임오)

● 결국 민제인은 1548년에 삭탈관직을 당하고 공주(公州, 세종시 반곡동 솔빛초교 인근)로 유배를 갔고, 이듬해(1549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민제인의 관료활동과 경세관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민제인은 중종~명종 대에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재능 있는 관료로서, 또 덕망 높은 장자(長者 : 덕망이 뛰어나고 노성한 사람)로서 칭송받았던 고급 관인유자였다. 그는 문과로 출사하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조정으로부터 문무겸전의 관리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민(民)을 구휼하는 데 힘써, 장자(長者)라는 칭송을 받았다. 또한 그가 지은 「백마강부」는 조선을 대표하는 시부가 되었고, 『동몽선습』은 최초의 아동용 교재였다는 점에서 그의 특출한 인문학적 재능과 공적이 평가되며, 이 또한 그의 경세관을 반영하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둘째, 민제인은 사화기를 후덕과 의리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고급 관인유자였다. 그는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명현들을 존중하여 그 신원운동에 앞장섰고, 또한 그 개혁정신을 배우고자 했다. 그는 대사헌으로서 을사사화의 주도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다는 백인걸의 비판에 대해 '확언(確言)'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노모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깨끗이 수용하였다. 또한 그는 사화기에 늘 인정(仁政)을 강조하여 피화 사림을 옹호했으며, 사림의 피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그가 사화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온건 대책이었을 것이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셋째, 민제인은 훈척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섰다가 죽음을 맞은 을사사화의 피해인이었다. 1548년 이기 등 훈구세력들은 을사사화에서의 자신들의 비행을 숨기기 위해 안명세가 직필로 쓴 시정기(時政記)의 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민제인은 이것을 적극 반대하여 훈척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민제인은 마침내 훈작과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지 공주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따라서 민제인은 비록 본의와 달리 위사공신으로 책록되었지만, 결국은 그 공신들에 의하여 배척을 받고 유배를 당하여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니, 사실상 을사사화의 피해자였다. 이것은 『국조인물고』와 『전고대방』 등에서 민제인을 을사사화의 이화인(罹禍人, 즉 피해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그러면 민제인의 이러한 관료활동과 경세관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이다. 민제인은 조정에서의 문신 월과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매번 성실을 다하여 다섯 번이나 장원을 하였고, 변방의 수령이 되어서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백성들이 그의 장덕을 칭송했다. 그가 조정에서 '문무겸전의 인재'로 인정받고, 나아가 나라가 어려울 때 귀하게 쓰일 인재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의 탁월한 문무겸전의 능력과 함께, 바로 이러한 그의 성실성이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둘째, 자신의 단점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만일 그 말이 옳다면, 그것을 깨끗이 시인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있는 태도이다. 민제인은 '자비승'이라고 칭해질 만큼 선하고 온건한 성격이었고, 경세에도 온건한 방법을 선호했다. 을사사화 때 그가 대비의 밀지를 대간의 총의가 아니라 대신들의 의견 형식으로 군왕에게 보고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마 그런 방법의 모색이었는지 모른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헌납 백인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대사헌 민제인의 처신을 비난하여 '전령(傳令)하는 군졸(軍卒)'로 비판했을 때, 민제인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확언(確言)'이라고 하여 그 지적을 쾌히 받아들였다. 고관으로서 자신의 단점이나 한계에 대한 하급자의 지적을 바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고급관인으로서의 매우 훌륭한 자세이며 보기 드문 자세이다. 민제인의 이러한 처신은 후일 정조대의 관원들에게도 '대신의 모범적 자세'로 칭송되고 회자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셋째, 평소에는 온건한 처신을 선호하였지만, 의리적 결단이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고 투쟁했던 그 정의감이다.

민제인은 언제나 크게 모나지 않은 온건한 관리였다. 그러나 을사사화를 주도한 세력들이 그들의 비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안명세가 직필로 쓴 시정기(時政記)를 고치려 했고, 또 그를 죽이기까지 했을 때, 민제인은 목숨을 걸고 그 부당성을 성토했고 끝까지 항거했다.

4. 관료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넷째, 고급관원으로서 시대적 책무를 통감하고, 동몽선습을 지어 윤리질서의 재건에 앞장 선 높은 도덕정신과 사명의식이다.

이 책은 최초의 아동용 인성 교재로서, 청소년에게 오륜적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을 함양케 하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유교사회 형성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 의지의 결실이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고급 관원으로서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 하나의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하여 그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는 오늘날 우리시대에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